



우리투자증권 기순상 광주지점장은 SK케미칼과 평산을 추천종목으로 꼽았다. 기 지점장은 최근 생명과학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SK케미칼의 경우 올해 말 상장예정인 SK건설로 인해 평가차익이 예상되고 발기부전 치료제 시판과 중국

현지법인의 성장성 두각 등 호재가 많다고 말했다. 또 단조업체인 평산은 최근 3년간 평균 57%의 성장을 이루는 등 고속성장이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추천하게 됐다고 밝혔다.

SK건설 상장편 막대한 차이 年 평균 57% 고속성장 지속

■ SK케미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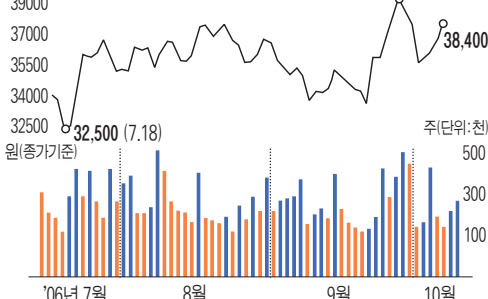
SK계열의 생명과학·정밀화학제품 제조기업으로 생명과학, 정밀화학, 석유화학(수지사업 포함)을 사업의 3대축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석유화학사업부문인 SK유화를 분할한 대신 SK제약, 동신제약을 합병함으로써 제약 및 정밀화학분야에 사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올해 실적은 유화부문의 분할 영향으로 매출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혈액제와 백신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한 동신제약과의 합병에 따른 제품 포트폴리오 다양화와 연구개발(R&D)분야의 강화로 수익구조 개선이 기대된다.

특히 지난달에는 비상장 계열사인 SK건설 주식 18.6%를 추가로 인수해 지분율을 58.03%로 확대하면서 자산주로도 주목받고 있다.

인수가가 주당 1만7천400원으로 SK건설 상장시 적정주가로 평가받고 있는 4만5천원~5만 원대보다 주당 3만원이 낮아 SK건설이 상장되

■ SK케미칼



면 막대한 평가차익을 올릴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에선 이와함께 동신제약 합병으로 매년 15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제약'과 '건설'을 양축으로 하는 지주회사로의 재편 등 다양한 경영전략이 가능하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휴비스 등 섬유관계사들로부터의 지분법 손실 규모가 주가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 평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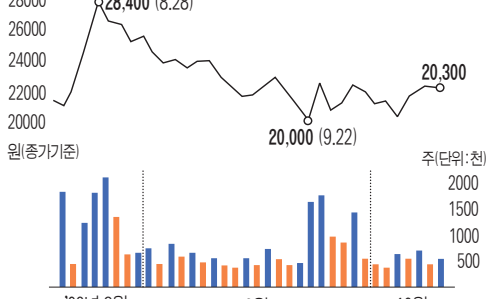
금형공구로 소재를 압축해 물품을 만드는 단조회사로 풍력발전설비와 조선기자재를 주로 생산하고 있다. 특히 풍력발전설비인 타워플랜지 부문 세계시장 점유율 29.1%를 차지하는 1위 업체로 매년 고속성장을 해오고 있다.

지난 8월 22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새내기주로 당시 1조6천억원이 넘는 공모자금이 몰려 올해 코스닥공모 최대어로 기대를 모았다. 상장직후 주가가 2만8천400원까지 치솟아 단조업체중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부상하기도 했으나 최근 2만원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

상장이후 한달동안 주가가 꾸준히 공모가를 웃돌아 코스닥업체로는 두번째로 기관투자자들에게 주식을 초과로 배정하는 옵션을 행사하는 이른바 '그린리'제도를 실시해 관심을 모았다. 또 9월초 2%이던 외국인 지분율도 현재 10%대에 육박하는 등 실적주로 각광받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평산의 가치를 높은 영업이익률

■ 평산



에 두고 있다. 평산은 지난해 매출 1천403억원에 영업이익 241억원을 기록해 경쟁업체인 태웅의 매출 2천160억원, 영업이익 277억원에는 뒤졌으나 수익성 지표인 영업이익률에서는 17.2%로 단조업체중 최고를 기록했다.

이에반해 상장후 6개월이 지나지않은 신규주로 시초가가 다소 높게 결정돼 기관들의 보호에 수기간이 풀리면 물량압박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은행대출 연체 기준

‘원금→원리금’ 변경

내년 1월 1일부터

내년 1월1일부터 은행들의 대출채권에 대한 연체기준이 현행 원금기준에서 원리금기준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금융 소비자들이 불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연체이자를 부과할 때 적용되는 연체기준은 현행 원금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연체기준 합리화와 감독기준의 국제적 적합성 제고를 위해 은행 대출에 대한 연체기준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은 “은행 대출채권에 대한 연체기준을 현행 원금기준에서 내년부터 원리금기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행 원금기준 연체는 이자를 연체해도 원금 전체를 연체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원금이 연체되는 시점부터 대출금 연체로 취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원리금기준 연체는 이자 또는 원금중 하나라도 연체를 하게 되면 연체하는 시점부터 원금 전체를 연체한 것으로 취급하게 된다.

김 부원장은 또 “연체율을 산정하는 방식도 현재 1일 이상 원금연체기준에서 앞으로는 1개월 이상 원리금연체기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연체이자를 부과할 때 적용되는 연체기준은 금융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현행 원금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금강산·개성공단 등 경험참여업체

안보리 제재 영향 ‘축각’

1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가운데, 현대아산을 비롯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 경험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은 결의안이 경험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결의안은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계획에 기여하는 물자와 사치품 등의 대북 수출을 금지한다고 명시, 일단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 등 순수한 남북 경험사업은 일정한 정도의 차질을 제외하면 명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사업을 이끌고 있는 현대아산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경험 사업에 미칠 영향에 축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대아산은 이번 유엔 결의안에 금강

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무난하게 이들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북핵위기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과 북한과 직접 교역을 해온 업체들은 대북 제재안 채택에도 불구하고 대북사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만약의 사태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 채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사업을 계속 한다는 정부 방침에 안도하면서도 북측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문제로 개성공단 사업이 잠정 중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최악의 사태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로도복권 (제202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12 14 27 33 39 44	17	
등 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1,893,391,700	6
2 5개숫자+보너스 숫자일치	47,334,793	40
3 5개 숫자 일치	1,536,844	1,232
4 4개 숫자 일치	60,558	62,532
5 3개 숫자 일치	5,000	1,043,620

팝콘복권 (제25회)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10억	6조 643185
		6조 643186
2	5억	6조 643184
3	1천만	1등과 조가 다른 번호
4	1백만	각조 74059
5	1만	각조 539
		각조 91
6	2천	각조 60
		각조 6
7	1천	각조 1



‘태극 김치’ ‘성조기 김치’

지난 14일 서울 미8군 용산기지에서 열린 ‘콜롬버스데이 축제행사’에서 미군과 가족들이 한성식품에서 마련한 다양한 퓨전 김치를 맛보며 환하게 웃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태극 모양의 태극김치와 성조기 모양의 성조기 김치를 비롯해 특허 및 퓨전김치가 선보였다.

/연합뉴스

세원 포착 안되는 민간소비 54조원

실제 소비지출의 25%

공과금, 보험료 등을 제외한 전체 민간소비지출 중에서 세원이 포착되지 않는 규모는 54조원으로 실제 소비지출의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국제청이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전체 민간소비지출’은 424조6천300억원에 달했다.

이중 공과금, 교통·통신, 금융·보험,

국외소비지출 등 과표양상률 대상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금액은 약 209조원이 고 이를 제외하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될 수 있는 ‘실제 민간소비지출’은 약 215조원에 달한다고 국제청은 설명했다.

또 2005년 신용카드 사용액은 190조4천630억원으로 전체 지출의 44.9%를 점했고,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18조6천430억원으로 4.4%에 달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액 중 공과금, 교통·통신, 법인카드 이용금액 등 과표양

상화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47조원을 뺀 143조여원과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18조여원을 합한 161조여원이 ‘실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라고 국제청은 밝혔다.

따라서 실제 민간소비지출 215조원에서 ‘실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161조원을 뺀 54조원이 세원 포착이 되지 않은 민간소비지출이어서 ‘세원 미포착률’이 25%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함께 일합시다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한국공업엔지니어링	정규직 비피과정사 직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0/16	062-369-0790
정호엔지니어링	공정자동제어PLC경력자	고졸/경력3년	회사내규	10/17	02-1333-5555
☞윌터웍스 유진	국내 건설업체 영업 및 관리 업무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10/17	02-2163-6450
☞ L.S.T	일반사무직	대졸/경력무관	1800~2000	10/17	062-650-6545
인포드림넷☞	하나로빌레콤 고객센터 계약직 인바운드 상담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800~2000	10/18	062-236-0217
☞빅마켓	가전전문 구매 및 MD기획업무 담당자 채용	초대졸/경력3년	회사내규	10/18	062-650-2205
☞석영브라이스트	반도체영업/영업관리(Inner sales)/반도체물류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20	02-3218-1627
삼창기업☞	호남시정소 경정비공사	고졸/경력무관	1200~1400	10/20	031-458-8866
☞메니패스토푸드시스템	패밀리리스토랑 '알래스카' 광주월드컵점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23	031-740-9977
LG이노텍	LG이노텍 사무지원 계약직	고졸/경력무관	1200~1400	10/23	062-950-0458
대우캐피탈 광주전남지사	2006년 분야별 정규직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24	011-649-4009
동국전자☞	생산직 모집	고졸/경력무관	1600~1800	10/24	062-952-4492
엔하이테크☞	광주공장 품질관리 경력사원 모집	고졸/경력2년	1800~2000	10/25	032-851-0350
☞엔지테크	병원프로그램 개발자 채용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25	062-675-8750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OLED 특허등록 올 상반기 548건

한국, 세계 1위

우리나라가 올해 상반기에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각광받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관련특허를 가장 많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OLED 전문 조사기관인 OLEDNET이 발간한 ‘OLED 특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세계에 등록된 OLED 관련특허는 총 1천27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우리나라의 등록 특허가 53%인 54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 등록 특허가 343건(33.4%), 일본 등록 특허가 136건(13.2%) 순이었다.

특히 출신원의 국적 분포에서도 한국은 지난해 34.8%에서 올해 상반기 45.2%로 상승하며, 같은 기간 43.8%에서 39.3%로 하락한 일본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OLED 특허를 가장 많이 등록한 업체는 삼성SDI인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SDI는 전체의 26%인 267건을 등록해 각각 79건과 77건을 등록하는데 그친 일본의 세이코-엡손과 LG전자를 큰 차이로 따돌리고 선두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생활고 심해졌다...

가스·전기 끊은 가구 급증

사용료를 제 때 내지 못해 가스 및 전기 등 생활 필수 서비스 공급마저 끊어진 가구가 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우리 사회의 빈곤층 확대 추세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15일 산업자원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요금 체납으로 가스 공급이 중단된 가구는 전체의 1.2%인 13만5천가구, 체납액은 모두 1천514억원에 이른다. 가스 중단 가구는 2004년 6월 9만2천639가구, 2005년 6월 9만1천202가구 수준을 유지하다 올해 들어 급증했다. 체납액도 작년 6월의 1천253억원과 비교해 250억원 가량 늘었다.

단전 가구 역시 비슷한 추세로, 요금 미납 등으로 전기가 끊긴 경험이 있는 가구는 2004년 16만4천788가구에서 지난해 17만4천43가구로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8만1천109가구가 단전을 경험했고, 6월 현재 여전히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집도 3천65가구나 된다.

가스나 전기 모두 3개월 이상 요금이 밀려 독촉을 받고도 계속 체납할 경우 공급이 중단된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스·전기 요금 체납자들은 대부분 국민층과 차상위계층으로 추정된다”며 “빈곤 가구가 늘고 이들의 적자 폭도 커지는 추세를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보험사기범 절반

20대 조직폭력배

금융감독원 제출 국감자료

금융감독당국은 올해도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람들의 절반 정도가 20대 조직폭력배들이라고 밝혔다.

15일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적발된 보험사기자는 2천731명이며 이중 47.6%인 1천301명이 20대다. 또 보험범죄자들을 직업별로 보면 무직자가 전체의 34%인 93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형업소나 차량정비업체 종사자도 118명에 달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람들의 절반 정도가 20대 조직폭력배로 이들의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직폭력배들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거액을 뜯어내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와 국회는 보험사기를 형법상 사기죄로 다루지 않고 별도의 범죄로 지정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보험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화점 등 납품업자 69%

“불공정거래행위로 어렵다”

백화점, 할인점, 홈쇼핑 등에 납품을 하거나 입점해있는 중소기업자 가운데 68.5%가 이들 대규모소매점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서 지난 7월3일~11일 백화점·할인점·홈쇼핑 등 39개 대규모소매점업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 3천개 업체에 서면설문조사를 서를 보낸 뒤 이중 회수된 1천395개 업체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업종별 법위반 혐의 비율은 백화점 70.5%, 할인점 69.7%, 홈쇼핑 63.4% 등으로 백화점·할인점·홈쇼핑 모두 비슷한 정도로 납품업자나 점포임차인에 부당한 거래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